

끝없는 사립교사 채용비리... 답없는 공정 선발

광주교육청 임용시험 위탁 요청 73곳중 9곳만 수용

위탁 학교 재정 지원엔 시의회 "학교 길들이기 안돼"

검찰이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사립법인 이사장 등을 구속한 사건을 계기로 끊이지 않고 잇따르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투명성을 담보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교사 채용 시합'을 위탁하는 사립학교에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올렸다가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립학교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교사 채용 위탁해라"... "인사권 침해"=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교사 채용을 위탁하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매년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인사 공정성, 신뢰성 확보에 힘써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경 수사 당국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 사건을 잇따라 적발하는가 하면, 국외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역 사립학교 법인 임원의 친·인척 특별 채용 사례를 발표하는 등 지역민들 사이에서 의혹의 시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사립학교 중 교육청의 위탁 요구를 수용한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시교육청이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2011년 이후 사립학교 교원 채용 현황'에 따르면 교육청에 채용 전형을 위탁한 학교는 ▲진흥중·고(2010, 2012년) ▲동명고(2011년) ▲세광학교(2012년) ▲세종고(2011년) ▲조선대 부속 중·고, 여중·고(2012년) 등에 불과하다.

광주지역 사립학교가 36개 법인 73곳(초 3·중 26·고 42·특수 2)으로 교사 수만

36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교육청 위탁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명백한 인사권 침해라는 인식이 사립학교에 쌓여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돈 주겠다... 길들이기냐=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사 채용 위탁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적 지원 방안까지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공개전형'을 위탁해 실시하는 학교 법인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마련,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위탁을 독려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급 재정난에 도움을 주면서 신규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여주는 취지가 반영됐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인센티브 제도는 시의회에 의해 거부됐다. 시의회는 이같은 계획이 사립학교 길들이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

다. 당시 시의회 안팎에서는 시의회가 사립학교 투명성 확보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끊이지 않는 채용비리... 연재나 멈추나=광주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는 연례 행사처럼 끊이지 않고 언론에 오르내렸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최근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 사립법인 이사장과 법인실장을 구속한 바 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교사 채용을 빌미로 브로커에게 피해자들을 소개해 준 혐의(상습사기)로 B 학교 교사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광주남부경찰청은 지난 2014년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청탁 명목으로 기간제 교사들을 꺾어 수억원을 가로채 달아난 현직 교사를 수배한 바 있다. 지난 2009년에 정광학원의 채용 비리로 지역 교육계의 자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충혼탑 지정 여수 해경교육원 첫 '추념행사'

광주·전남 현충일 행사 다채

광일보훈대상 14일 시상식

제61회 현충일 6일 광주·전남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은 이날 여수 해양경비안전교육원 내 세워진 해경충혼탑에서 첫 추념식과 위패봉안식을 개최했다.

위패봉안식은 지난 2월3일자 국민안전처 훈령으로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의 충혼탑이 해양경찰 정식 충혼탑으로 지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지난해 8월 응급한자 후송 중 충돌사고로 숨진 고(故) 오진석 경감 등 4명의 위패봉안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날 남구 구동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추념식을 거행했다. 추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전몰 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도 이날엔 전남지사과 장만재 전남도교육감, 국회의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 부흥산 현충탑 광장에서 추모행사를 열어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호국의지를 드높였다.

광주일보사는 제43회 광일보훈대상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수상자는 상이군경 부문 심효섭(66)씨, 중상이자 배우자 부문 김점초(64)씨, 미망인 부문 김덕례(79)씨, 유족 부문 안준순(67)씨, 특별 부문 김명식(82)씨 등 5명이다.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정부광주지방법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kwangju.co.kr

타지 출신 장병 92% "전역후 광주 찾겠다"

'빛고을 투어' 인기

광주에서 현역 군·경으로 복무하는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빛고을 투어'가 호평을 얻고 있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10년부터 31사단, 503여단, 제1전투비행단, 포병학교, 광주지방경찰청에서 복무하는 다른 지역 출신 장병을 대상으로 지역투어 행사를 해왔다. 올해 두 차례 91명 등 지금까지 27회 동안 1057명이 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참여했다. 이 투어는 전문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국립 5·18 민주묘지, 기아차 광주공장, 가사문화관, 호수생태원, 소재원, 남구역사마을,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참여한 장병 38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92%가 "전역 후에도 광주를 다시 찾겠다"고 응답했다. 투어만족도 87%, '광주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느냐'는 문항에 72%가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최권익기자 cki@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18 달뜨기 07:23
해질녘 19:45 달지기 21:41

아침 안개 주의

구름이 많이 끼고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구름많음	18/27	보성	구름많음	17/24
목포	구름많음	18/24	순천	구름많음	19/26
여수	구름많음	18/23	영광	구름많음	18/27
나주	구름많음	18/28	진도	구름많음	18/24
완도	구름많음	18/25	전주	구름많음	18/27
구례	차차흐려져	18/27	군산	구름많음	18/25
강진	구름많음	18/25	남원	구름많음	18/26
해남	구름많음	17/26	홍산도	구름많음	16/22
장성	구름많음	17/27			



비다 날씨

		오전		오후	
서해	남부	북~북동	0.5	북서~북	0.5
남해	서부	북~북동	0.5~1.0	북동~동	0.5~1.0
		북~북동	1.0~2.0	북동~동	1.0~1.5
		북~북동	1.0~1.5	북서~북	1.0~1.5

생활지수

주요	식중독
높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3:46	08:54
	15:47	20:58
여수		
	10:32	04:25
	23:00	16:31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19/28	19/30	19/31	19/29	19/29	19/29	19/29

음주적발에도 징계 없는 교육계

광주·전남 최근 3년간 240건 교육청 통보... 인사 불이익 없어

광주 모 중학교 A교장은 201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공무원 신분을 감춰 교육청에 통보되지 않았다. A교장은 같은 해 8월 교장에 중임됐다.

또 다른 중학교 B교장은 2013년 1월 초 광주서부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뒤 신분을 숨였고, 지난해 3월 교장으로 승진했다.

광주·전남지역 교직원 240여명이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다. 하지만 대다수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숨기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광주·전남지역 교직원 240여명의 명단을 지난 2월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시·도 교육청은 운전자의 나이와 음주운전 적발 일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명단 확인작업을 벌였다. 그 결과 대다수가 현직 교직원으로 확인됐다.

광주가 40명, 전남이 200여명이다.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적발된 교직원 40명 중 26명이 교장·교감을 포함한 현직 교원이고, 14명은 일반적이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 만취상태로 운전한 교직원이 2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50대 일반직 직원은 오후 9시30분께 무려 0.22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의 기기 측정을 거부해 채혈로 음주사실이 틀림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특히 월요일 오후 5시39분 근무시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선 0.2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월요일 근무시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복무점검과 징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견책부터 감봉까지, 0.1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 의결토록 돼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직부터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시·도간 징계 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징계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겨 만취상태로 운전한 교직원이 20명으로 절반에 달했다. 50대 일반직 직원은 오후 9시30분께 무려 0.22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경찰의 기기 측정을 거부해 채혈로 음주사실이 틀림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특히 월요일 오후 5시39분 근무시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넘어선 0.218% 상태에서 운전하다 단속된 사례도 있었다.

유정심 광주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월요일 근무시간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청의 철저한 복무점검과 징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미만인 경우 견책부터 감봉까지, 0.1 이상인 경우 감봉부터 정직까지 징계 의결토록 돼 있다. 2회 음주운전의 경우는 정직부터 해임, 3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해임부터 파면에 처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각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경우 시·도간 징계 결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보고 징계 기준을 마련해 조만간에 각 시·도 교육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추모의 마음으로 제 61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념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전몰 군경 유족과 국가유공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새 주인을 찾습니다

매매

아름다운 팬션 카페 영업중!!

- 70~80년된 낫골, 소나무, 단풍나무, 황금공작편백,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잡종지 15,688㎡(4,745평), 단층 슬라브 350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12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C 15분 / 문평·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교회수양관, 체험학습장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 현지 답사후 금액 협의결정

H. 010-3119-6952